

2024년 3/4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2024. 6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4. 5. 28. ~ 6. 21.
- 분석대상 : 139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39	100	38	101		
비중	28.1%	71.9%	27.3%	72.7%		
업종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철강·금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매수	26	27	33	18	11	24
비중	18.7%	19.4%	23.7%	12.9%	7.9%	17.3%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요약

● 2024년 3분기 전망BSI '88.5', 2분기 실적BSI '85.6'

- 방위산업 수출계약과 조선업 수주가 이루어지고 글로벌 물류상승, 무역갈등, 3고 현상에 따른 대내외 여건으로 전망에 부정적 영향.
- 매출액, 설비투자 부분에서는 약보합, 고물가로 인한 내수 경제 부진, 장기간의 고금리 상황이 기업의 채산성을 저하시켜 영업이익 부문이 낮은 전망을 나타냄.
- 또한 기업의 부채이자 상환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자금사정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 기타운송장비(조선, 철도, 항공 등)(127.3)은 전망BSI 기준치(100)을 상회했으나, 전기·전자 제조업 (88.5), 기계·장비(87.9)와 이를 후방 지원하는 기타제조업(화학, 식음료 등)(87.5), 철강·금속(77.8)은 기준치 하회

● 응답업체 59.7%, 상반기 실적(영업이익) 목표치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소폭 초과 달성(5.8%), 목표수준 달성(34.5%), 소폭 미달(39.6%),대폭 미달(20.1%)
- 대·중견 기업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응답이 38.5%, 중소기업의 경우 68%가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

● 하반기 우려되는 리스크로 '유가·원자재가 상승', '내수소비 위축' 각 26.6%로 가장 많이 응답해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아

- 이어서 '해외수요 부진'(15.8%), '고금리 장기화'(15.1%), '환율변동성 확대'(9.4%), '규제강화 등 국내 정책이슈'(3.6%)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유가 원자재가 상승'이, 중소기업의 경우 '내수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것으로 나타났고,
- 매출형태별로 수출기업은 '해외 수요부진', 내수기업은 '내수소비 위축'과 '유가·원자재가 상승'을 꼽은 비중이 높았음.

● **응답업체 73.4%, 중국 과잉공급, 저가상품 수출확대로 실적에 영향이 있거나 향후 피해가능성 있을 것**

- '현재 영향 없으나 향후 피해 가능성 있음'(40.3%), '매출·수주 등 실적에 영향 있음'(33.1%), '영향 적거나 없을 것으로 전망됨'(26.6%)로 응답
- 그 이유로 '판매단가 하락 압박'(34.0%), '내수시장 거래 감소'(31.3%), '중국 외 해외시장 판매 부진'(16.3%), '대중국 수출감소'(10.9%),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축소, 중단'(7.5%)로 꼽아...

● **중국 경쟁기업 대비 기술력 및 품질 경쟁력이 우위에 있거나 비슷하지만 단기간에 추월당한것으로 예상**

- 중국 대비 자사 기술력은 '우위에 있으나 기술 격차 축소', '계속 우위에 있음'을 각각 39.6%, 27.3%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다음으로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당함'(21.6%), '중국기업체에 추월당해 열위에 있음'(10.8%), '계속 열위에 있음'(0.7%)로 응답
- 몇년 이내로 기술력을 중국기업이 추월할 것인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4~5년 이내'(36.6%), '2~3년 이내'(35.0%), '6~10년 이내'(16.3%), '10년 이상 소요'(6.5%), '1년 이내'(5.7%) 순

● **중국 저가물량 공세 대응 전략에는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

대응 지원정책에는 '국내산업 보호 조치 강구' 가장 많이 꼽아

- 대응전략,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25.2%), '제품 다변화 등 시장저변 확대'(18.6%), '신규 수출시장 개척 공략'(17.7%), '인건비 등 비용절감'(16.8%), '현지생산 등 가격경쟁력 확보'(10.6%), '대응전략 없음'(10.2%) 순
- 대응 지원정책, '국내 산업 보호 조치 강구'(36.7%), '신규시장 개척 지원'(25.2%), '연구개발 지원 확대'(20.9%), '무역금융 지원 확대'(10.1%), 'FTA관세혜택 활용 지원'(6.5%), '기타'(0.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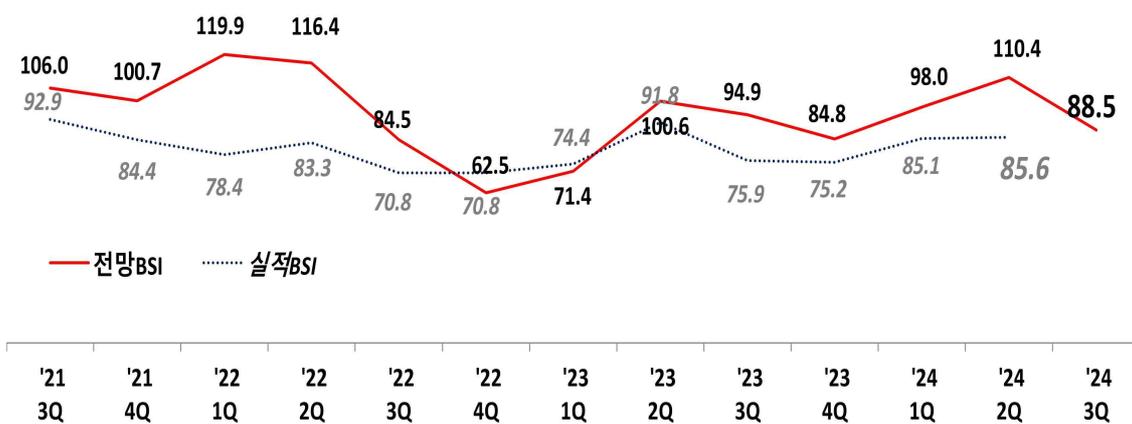
Ⅲ

2024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4년 3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 지수)가 '88.5'로 조사되어, 기준치(100)을 하회했음.
- 계속되는 방위산업 수출계약과 조선업의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물류비 상승, 주요 수출국의 무역갈등 고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대내외 여건 악화가 3분기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24년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BSI는 수익성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짐에 따라 기준치를 밑돈 '85.6'으로 조사되었음.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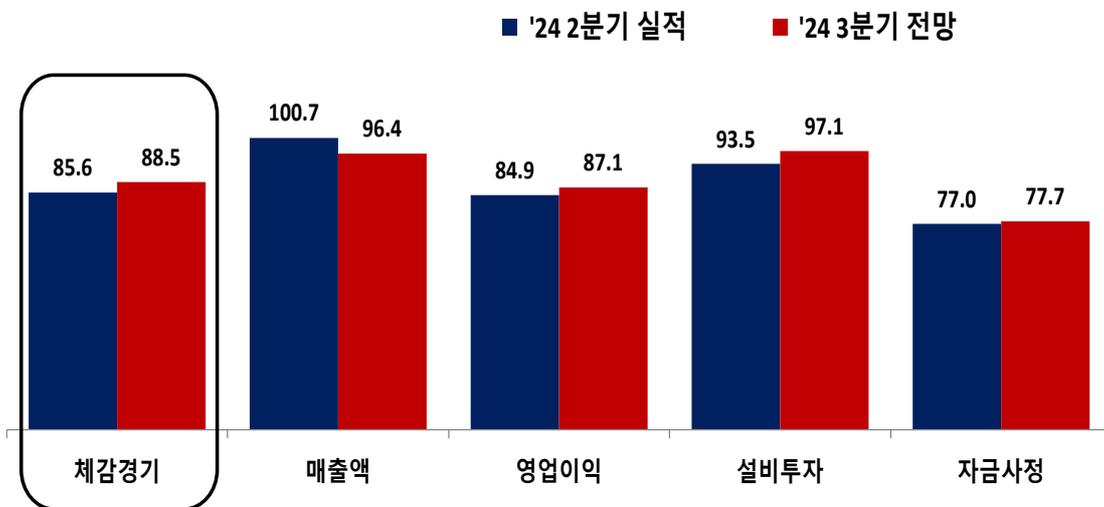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4년 3분기 항목별 전망BSI는 설비투자(97.1)과 매출액(96.4), 영업이익(87.1), 자금사정(77.7)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 매출액, 설비투자 부분에서는 약보합을 나타냈으나, 고물가로 인한 내수 경제 부진, 장기간의 고금리 상황이 기업의 채산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영업이익 부문이 낮은 전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부채이자 상환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자금사정 전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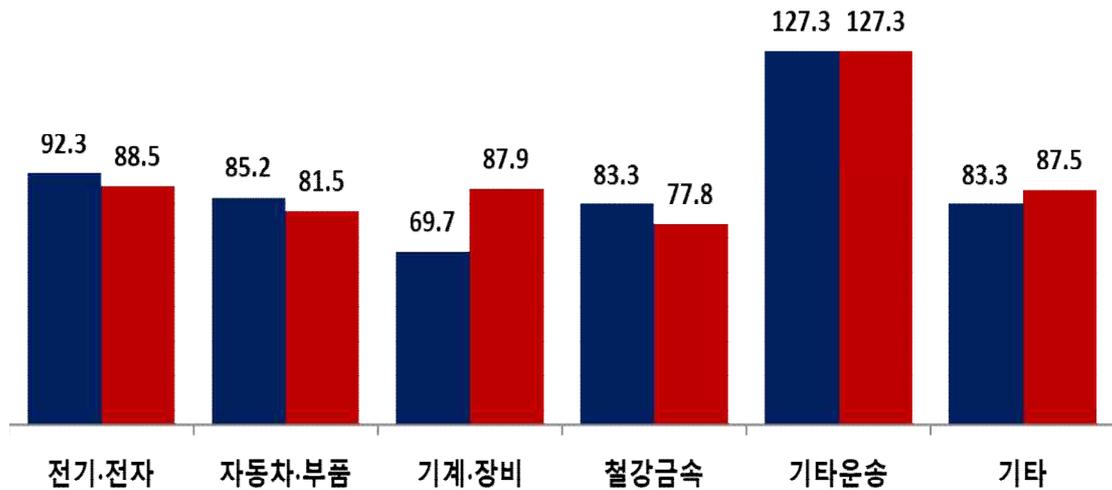


3. 업종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4년 3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은 창원산업의 주력 제조업인 기타운송장비제조업(127.3)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전기·전자제조업(88.5), 기계·장비(87.9), 자동차·부품(81.5), 철강·금속(77.8)은 기준치를 밑돌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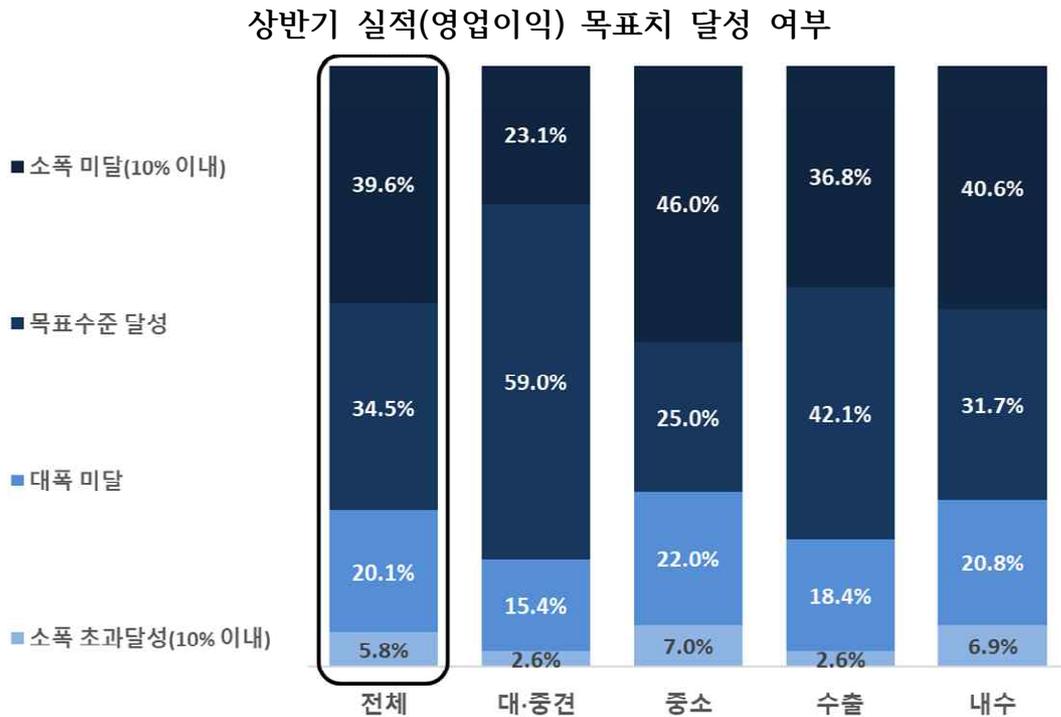
■ '24 2분기 실적 ■ '24 3분기 전망



-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경우 지난 분기에 이어 실적과 전망치가 모두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음. 특히 조선업의 경우 환경규제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과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박의 수요가 상승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방위사업의 수출계약으로 인한 항공엔진 생산 활성화로 인해 항공산업의 실적이 함께 상승세를 보여 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자동차와 그 부품, 기계·장비 산업의 경우 국내내수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둔화로 인한 전방수요 감소로 부정적 경기전망을 보이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하는 철강산업은 조선용 후판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의 회복 지연과 저가 중국산 철강 수입으로 3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경기전망을 이어가고 있음.

4. 상반기 목표치 달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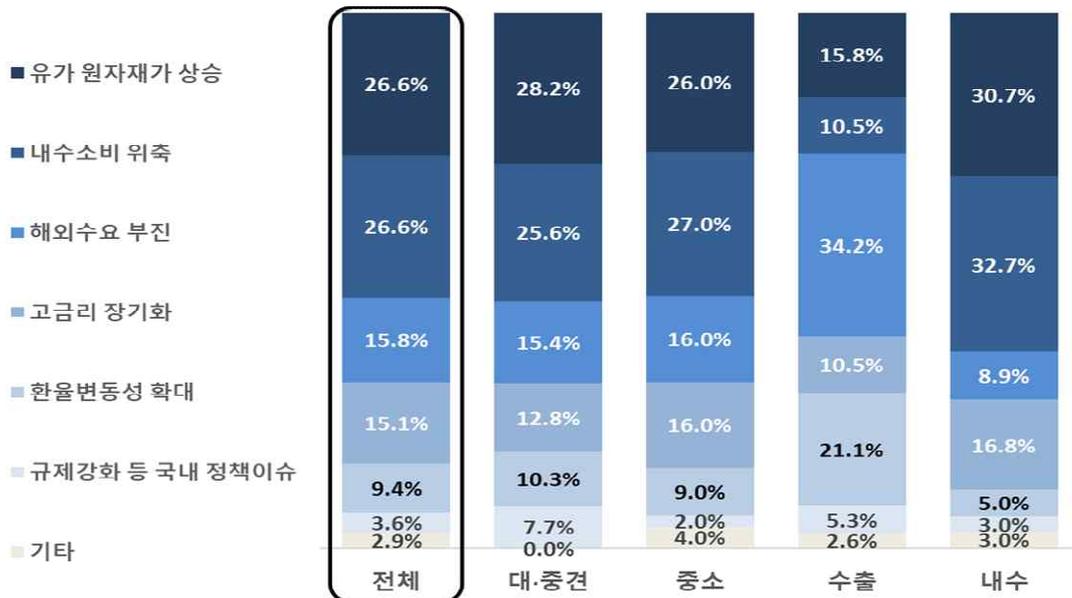
- 올해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업체의 39.6%가 ‘소폭 미달(10% 이내)’, 20.1%는 ‘대폭 미달(10%이내)’로 답해, 59.7%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음.
- 반면 ‘목표수준에 달성할 것’으로 답한 비중은 34.5%로 나타났고, ‘소폭 초과 달성(10%이내)’은 5.8%로 답해 전체 40.3%는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전망했음.
- 특이점으로 대·중견 기업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응답이 38.5%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68%가 응답해 큰 비중을 나타냈음.



5. 하반기 우려되는 대내외 리스크

- 하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유가·원자재가 상승’(26.6%)과 ‘내수소비 위축’(26.6%)을 응답해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음. 다음으로 ‘해외수요 부진’(15.8%), ‘고금리 장기화’(15.1%), ‘환율변동성 확대’(9.4%), ‘규제강화 등 국내 정책이슈’(3.6%) 순으로 답했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유가·원자재가 상승’(28.2%)으로 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고, 중소기업은 ‘내수소비 위축’(27.0%)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음.
- 매출형태별로 수출기업은 ‘해외수요 부진’(34.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내수기업은 ‘내수소비 위축’(32.7%), ‘유가·원자재가 상승’(10.7%), 으로 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음

하반기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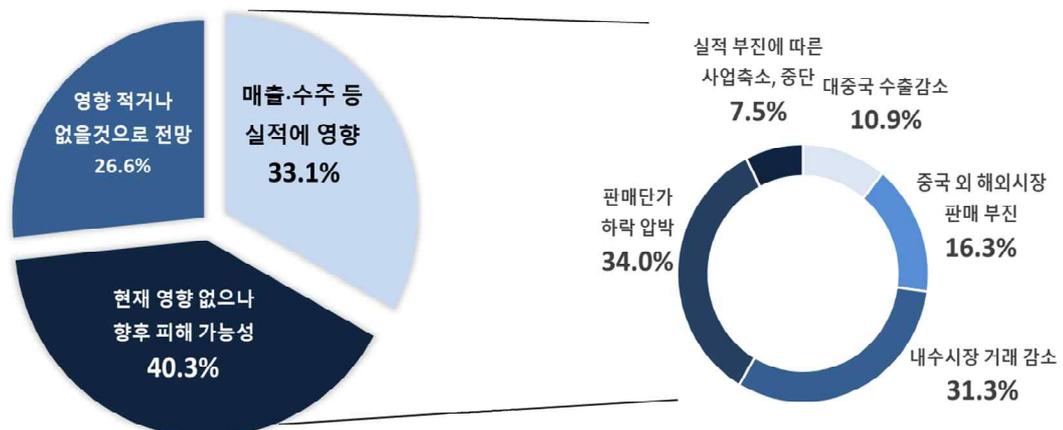
IV

중국 저가공세 영향

1. 중국의 과잉공급, 저가상품 수출확대의 실적 및 경영 영향

- 중국의 과잉공급 및 저가상품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기업의 실적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0.3%는 ‘현재 영향 없으나 향후 피해 가능성 있음’으로 답했고, 33.1%는 ‘매출·수주 등 실적에 영향 있음’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26.6%는 ‘영향 적거나 없을 것으로 전망됨’으로 답했음.
- ‘중국의 과잉공급, 저가상품 수출확대의 실적 및 경영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 ‘판매단가 하락 압박’(34.0%), ‘내수시장 거래 감소’(31.3%), ‘중국 외 해외시장 판매 부진’(16.3%), ‘대중국 수출감소’(10.9%),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축소, 중단’(7.5%) 순으로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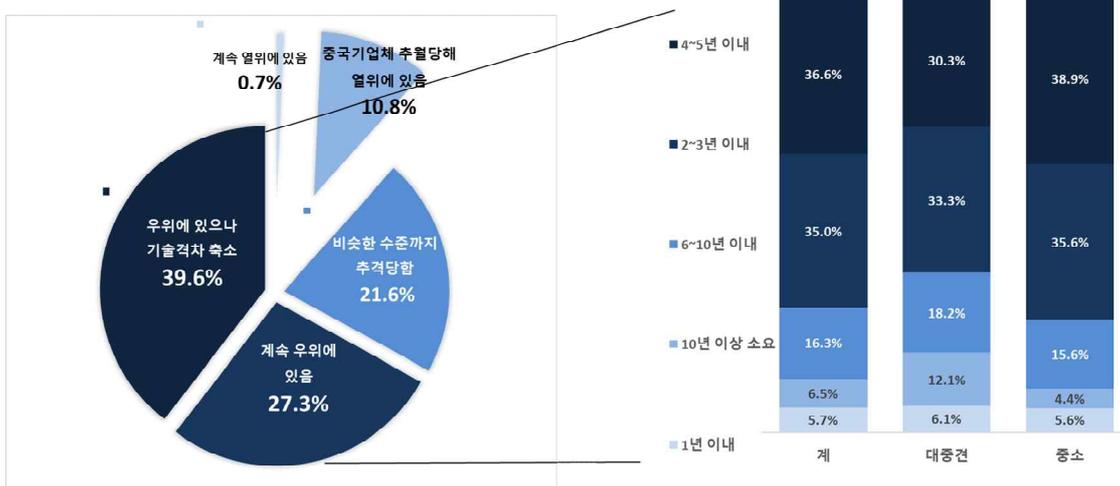
중국의 과잉공급, 저가상품 수출확대의 실적 및 경영 영향



2.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 변화

- 지난 5년간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이 중국 경쟁기업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는 질문에 ‘우위에 있으나 기술격차 축소’와 ‘계속 우위에 있음’을 각각 39.6%, 27.3%가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다음으로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당함’(21.6%), ‘중국기업체에 추월당해 열위에 있음’(10.8%), ‘계속 열위에 있음’(0.7%) 순으로 답했음.
- 몇 년 이내로 기술력을 중국기업이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4~5년 이내’(36.6%)과 ‘2~3년 이내’(35.0%)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6~10년 이내’(16.3%), ‘10년 이상 소요’(6.5%), ‘1년 이내’(5.7%) 순으로 답하여, 단기간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2년~5년 이내’에 63.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중소기업은 ‘2년~5년 이내’에 74.5%가 응답해 더욱 큰 비중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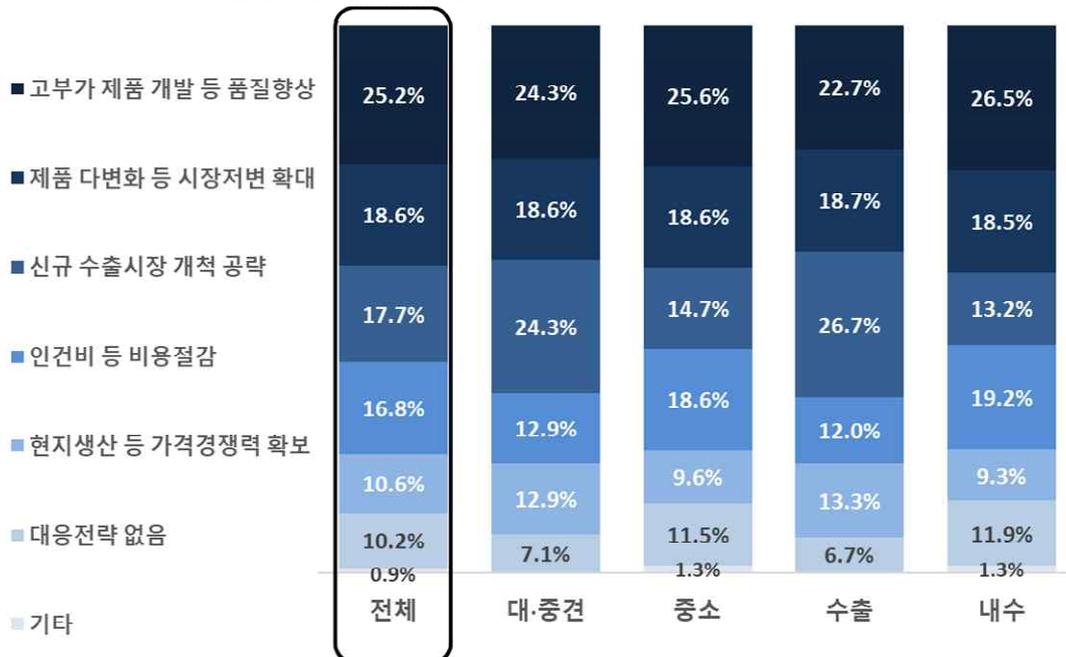
투자 영역 5년간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 변화 및 추월 예상(중국 대비)



3. 저가 물량 공세 대응 전략

-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하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25.2%가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으로 답했음. 18.6%는 ‘제품 다변화 등 시장저변 확대’로 답했고, 17.7%는 ‘신규 수출시장 개척 공략’, 16.8%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 10.6%는 ‘현지생산 등 가격경쟁력 확보’, 10.2%는 ‘대응전략 없음’순으로 답했음.
- 특이점으로 ‘신규 수출시장 개척 공략’의 응답률이 중소기업(14.7%)과 내수기업(13.2%)은 낮은 응답률 비중을 보인 반면에 대·중견기업(24.3%)과 수출기업(26.7%)은 각각 제일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중국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또는 검토 여부



4.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국내 산업 보호 조치 강구’에 36.7%가 답했음. 다음으로 ‘신규시장 개척 지원’(25.2%), ‘연구개발 지원 확대’(20.9%), ‘무역금융 지원 확대’(10.1%), ‘FTA관세혜택 활용 지원’(6.5%), ‘기타’(0.7%) 순으로 답했음.

○ 현재 중국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 조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업체의 경우 신규시장 개척 지원에 대한 응답이 더 많은 비중을 보이고있음.

그러나 중국은 대규모 인력 자원 및 광물 자원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물량 공세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